



산과 하나돼 깨달음 나무 **쭉쭉** 키워야죠

실상사 '작은학교' 입학식 현장



부모와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아 확대 가족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3월 3일, 전북 남원 지리산 자락이 소란스럽다. 흙이 풀썩거리고 봄은 어느새 기지개를 켜다. 조용한 농촌마을 산내에 생동의 기운이 가득하다. 다가온 봄 때문만은 아니다. 남원 실상사 작은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소란, 부모의 설렘이 봄기운

과 보태졌다. "입학하는 학생 여러분 대중큰방에 다 모였죠?" 경내를 울리는 마이크 소리에 따라 대중큰방에는 약 15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리 잡았다. 입학식인데 의자도 없이 방바닥에서 양반다리다.

흔히 입학식 하면 떠오르는 것이 운동장 정렬, 교장선생님 훈시, 신입생 대표 인사 등이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절차가 하나도 없는 입학식은 어떨까. 단 한명 '우등생'이 돋보이는 입학식이 아니라 입학생 모두 마이크를 잡고 포부를 이야기하고 학부모도 함께 각오를 밝히는 자리. 이것이 '작은학교'의 조금 특별한 입학식이다.

실상사 작은학교는 올해로 일곱번째 신입생을 맞았다. 올해는 모두 16명이다. 대표교사 이경재 선생님이 아직 긴장한 친구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려 한 마디 던진다.

"식구가 된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런데 식구 되는 과정이 만만치는 않아요. 힘을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입학했는지 되새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 깨달

이여지는 무대는 선생님들 차례다. 합창으로 준비한 '내가 찾는 아이'를 부른다. 기타를 치고 하모니카를 불며 반주 넣었지만 뭔가 어설플다. 읊도 가끔 안 맞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쿵 쿵' 웃음소리가.

선배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태양을 사랑하는 아이들아'를 들려주며 노래처럼 신입생 동생들이 자신들과 함께 커나갔으면 한다.

입학식 후 아이들이 향한 곳은 학교 주변 도보 30~40분 거리에 흙이 어저 있는 '언덕배기' '웃고기' '대청마루' 등으로 불리



선생님 · 선배들 노래로 신입생들 환영 '김치찌개 잘 끓이는 민성이' 소개도 독특 부모와 아이들 생활관 텃밭 함께 일구

음의 나무, 쭉쭉 키우시고요." 절에 와서 스님들 말씀 안 들어보면 또 섭섭하다. 주지 재연 스님이 먼저 운을 뚫다.

"여기서는 '나'와 다른 '존재'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스님들도 여러분 덕분에 늘 젊어지고 많이 배웁니다. 함께 잘 지내봅시다!"

이사항 심산 스님부산 흥법사 주지도 "지리산의 좋은 정기를 받아 좋은 그릇 되길 바라고 모두 '큰' 학교로 만들어 가자"며 격려한다.

하지만 아이들의 열렬한 환호성은 법인 스님(회엄 학림 화강에게 돌아간다. "신입생들 소문 들었어요. 우리 강원 스님들과 축구試合 한번 합시다!"

이어지는 신입생 소개. 그저 김△△, 이○○가 아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특징에 맞게 '산내 짱 아데바오' 동민이, '김치찌개 잘 끓이는 민성이', '지리산 허스키보이스 장복이' 등으로 소개된다.

한 명씩 자기소개할 때 아직 낯설어 엄마 뒤에 숨는 친구도 있고, 목소리가 떨리는 친구도 있다. 인사도 '초 간단' '잘 살게요!' 일색이다. 아이들이 어저찌꺼기 앞으로 친해지면 그만이지만 떴고 갈 부모의 마음은 편치 않다.

"14년 동안 떨어졌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잘할 거라고 한 번 믿어보려고요. 학교도 선생님도 그리고 아이와 저도요."

산 너머 마을에서 아들과 단들이 살아온 기쁨이 어머니는 특히 마음이 좋지 않다. 초등학교 문을 나선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아이들이 어저 격정스럽지 않을까. 하지만 부모님들은 알고 있다. 아이도 부모도 모두 씩씩하게 자립하고, 헤어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는 5개의 생활관이다.

각자의 생활관으로 가는 길. 같은 곳에 사는 아이들이 리듬처럼 같은 방향으로 걸어 나간다. 마주치는 동네 어른들에게 반갑게 '안녕하세요' 외치며 깔깔거리는 일들이 해마다.

세 아이 중 두 명을 작은학교에 입학시킨 운영팀(43·경기도 분당)씨는 왜 작은학교를 택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여기서는 '지리산이 아이들을 키운다'는 믿음을 해요. 학교와 학원의 굴레보다 산과 들에서 숨 쉬는 쪽이 아이들을 여유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너른 대지와 함께 자라나는 아이들. 자연 속에서 '너와 나'의 관계를 깨닫고 '연기(緣起)'를 체득하는 교육은 삶을 얼마나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장치인가.

하지만 작은학교가 지향하는 '대안교육'이란 것이 말처럼 멋있지만 한 것은 아니다. 작은학교도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열악한 시설도 문제고 비인간 교육이라 따로 검정고시를 치러야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하지만 작은학교는 '터전'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회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이다.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출발선에 서 있는 아이들. 어느새 그들 앞에 산수유 꽃이 노랗게 꽃망울을 터뜨린다. 아이들의 가슴 속에서도 저마다의 희망이 푹푹 터지고 있다. 남원/글·사진=김강진 객원기자



위에서부터 신입생들의 입학기념 노래, 부모님과 함께 텃밭 일구기, 선생님들의 인사, 작은학교 전경.

6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서울 노원구 노원역일원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문화의 거리'가 펼쳐진다. 야외무대공연과 거리공연 등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에서는 '휴보 로봇! 노원에 오다' 미디어 아트 모바일 쇼, 비보이 및 락 공연, 라틴·살사·재즈 댄스, 고적대 페레이드 외 다수의 행사가 펼쳐진다. 3월 24일까지.(02)950-4398

경남 밀양 내일동에서는
3월 13-14일 만세운동이 전개된다. 영남 최초의 만세운동인 1919년 3월 13일 밀양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인 전통을 되살려 시민들로 하여금 선열들의 빛나는 항일 저항정신을 계승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취지다. 3·13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 시가행진 등이 진행된다.(055)359-5114

문화관광부에서는
청소년 국악캠프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 여름방학 중 사물놀이, 단소, 판소리, 민요 등 강습, 공연

관람 및 발표회 등을 진행. 총 10개 내외의 단체에 2억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전통예술 공연단체며 기한은 3월 30일까지(당일 우체국 소인분 인장)(02)3704-9564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신소장품 2006전을 개최한다. 미술관이 실험을 기울여 소장한 작품들을 일반 관객에게 선보이는 '신소장품 2006'전을 오는 2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제 1, 7전시실 및 중앙홀에서 개최한다. 신소장품 전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작품 소장정책의 기본 방향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전시이다. 전시 설명회는 매주 토, 일 오후 2시와 4시에 있다.(02)2188-6000

전남 구례에서는
제9회 산수유 축제가 3월 15-18일 열린다. 길놀이, 마당극 등의 공연과 산수유꽃 활용 요리 등 다양한 체험과 문화 행사로 다채롭게 꾸며질 계획이다. 이밖에 노래자랑, 사생대회 등도 함께 펼쳐진다.(061)782-2014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에 후원을 해주세요!!!

어린이와 청소년은 미래불교의 주역이고, 희망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법회 전문지도교사를 배출하기 위해 대한불교교사대학을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지극한 신심과 정성이 한국불교에 밑거름이 되고, 불자님들의 거룩한 보시는 아름다운 불국도를 이룩하는 초석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심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전법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는 이런일을 합니다.**
- ▶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지도자 과정 운영 (년2회 여름·겨울)
 - ▶ 대한불교교사대학 운영
 - ▶ 여름·겨울 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 ▶ 불교레크리에이션을 이용한 군 불교 포교 및 사찰행사 지원
 - ▶ 서울·경인지역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모임 운영
 - ▶ 찾아가는 법당(법회·불교학교) 개설 및 운영
 - ▶ 연등축제 연희단 울동 기획 및 보급 등
 - ▶ 어린이 찬불가 울동 경연대회 개최
- 만인동참에 참여 바랍니다**
- 만인동참은 한사람 한사람이 한달에 일만원씩 후원하는 동참불사입니다.
- 사찰이나 단체별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단위사찰별로 년 간 또는 월간 일정액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 신행단체나 사회단체도 년 간 또는 월간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 1인 1만원 만인동참 후원**
- 계좌번호 : 신한 324-01-107672 / 농협 053-01-267940
 -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지로번호 : 7670909
- ※ 본회에서 같이 활동하실 지도자를 모집합니다.**
- ♣ 문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74번지 신도회관 405호
 - TEL : (02)738-7860 FAX : (02)738-7863 www.burec.org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특수교육기관, 제1호 어린이포교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한불교교사대학 제2기 신입생 모집

본 대학에서는 어린이포교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맑고 고운 천진분들을 위한 지도자 양성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본교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특전

- 불교어린이지도자응시자격부여(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알선(유급)
- 수강료 일시불 납부 시 10% 할인
- 스님, 포교사 30%할인
- 불교레크리에이션 전문 지도자 20%할인

• 모집대상 : 어린이포교에 관심 있는 스님 및 불자, 포교사, 어린이법회지도교사
 • 교육기간 : 불기2551(2007)년 3월 ~ 불기2552(2008)년 2월 (1년 과정, 여름·겨울 방학)
 • 개강일 : 3월 22일 (목) (입학식)
 • 교육장소 : 조계사 교육관 (매주 수·목 오후 7시~9시)
 • 모집기간 : 3월 20일 까지 / 접수방법 : 전화접수, 인터넷접수, 방문접수
 • 문의전화 : 본대학 교무처 (대)(02) 739-4967 www.burec.org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계서판 이용)

불기2551년 어린이 찬불가 울동 경연대회 언제? 불기2551(2007)년 4월 15일 일요일 누가? 서울경인지역 어린이법회 어린이 모두 어떻게? 찬불가 한곡을 정하여 울동을 창작한 후 4월 7일까지 참가비 5만원과 함께 접수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사무국(02)738-786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